

시 정 질 문 서

질문의원	김 성 근	서 명	
제 목	설악권(속초·고성·양양) 통합에 대한 방안	담당실과	자치행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예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설악권 통합에 대하여 2005년도, 2007년도 2회에 걸쳐 시정 질문을 하였습시다만, 최근 모 지역신문의 통합문제 주민여론 조사결과를 보면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지역통합을 이루어 함께 동반 발전 할 수 있는 기틀을 한층 더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4년도와 95년도 2번에 걸쳐 있었던 양양군과의 통합이 주민 투표에 의하여 무산되었으며, 행정구역 통합여론 조사에서 94년도에는 양양군의 찬성율이 15.9%에서 2008년도에 45.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주요 요인은 인구감소 현상과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통합이 되어야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기존 질문에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추진은 일개 자치단체가 특정단체의 요구와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추진될 사안은 아니고,

모든 주민들의 공동인식하에 주민의사가 최대한 존중되고 통합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민적 공감대, 필요성 등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면서, 통합여론이 형성되고 당위성이 충족되면 인근 자치단체의 입장, 여론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나가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족자원 고갈, 관광객 감소,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 등 침체되는 사회공동화 현상으로 우리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방법 중 하나는 우리 모두 거시적인 차원에서 인근 시군과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합 추진과정에는 지역갈등발생 우려와 혐오시설 농촌지역 배치 등 통합 주민들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며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을 통하여 행정·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번째**, 설악권 통·폐합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 사항, 향후 추진계획, 추진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인근 시·군과의 학술세미나와 워크숍 개최에 수반되는 향후 예산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정 질 문 서			
질문의원	김 성 근	서 명	
제 목	로데오거리 활성화 관련 청학동 군부대 이전사업 조속추진 대책	담당실과	건 설 과
본 의원은 지난 제152회, 제166회 정례회에서 2회에 걸쳐 우리 속초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속초 북부권 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최선책의 하나로 군부대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주 도심의 군부대가 위치해서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면서 우리시 주 도심의 개발촉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 중의 하나로 “100대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함은 물론 이전에 대한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관련부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2006.10.23일 관련 부대와 재협의, 2006. 12. 4 국방부 방문, 2007.1월부터 약 7회에 걸쳐 관련부대에 대한 협의와 요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라고 답변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어 다시 한번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이후 속초시는 관광여건의 변화로 관광객 감소 추세 이래 관광객을 통한 경제적 이익창출이 미흡하여 노후된 도심 가로환경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조성 및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문화·관광·쇼핑 테마거리 조성
도심관광 촉진·중앙로 상권회복 등을 위한 지역경제와 설악로데오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총 1,990m에 주차장조성·지중화사업·가로수
및 보도정비·각종조형물 설치 등 약 2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설악로데오 거리를 조성하고 있으나, 속초 시내 상권 중심에 연계
되어 있는 군부대는 설악로데오 거리에 걸맞지 않게 관광이미지를
반감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초호유원지 ~
금호주차장 도로구간은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청초호의
수질개선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청초호유원지 ~ 금호주차장 도로개설사업은 전체 구간
798m, 2차선 도로개설계획으로 2009년 말까지 도로개설 총사업비 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만일, 지금처럼 군부대가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군부대로
인하여 단절된 도로로서 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속히 군부대 이전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군부대와의 협의 결과, 군부대 이전이 구체적으로 언제
까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정 질 문 서			
질문의원	김 강 수	서 명	
제 목	해양심층수 사업의 합리적 추진 촉구	담당실과	재난산림관리과 도시디자인과 수질환경사업소
속초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의 합리성·합법성이 담보되었을 때만이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드리고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민선 4기 출범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청초호 마리나시설유치, 청초호변 일대 아쿠아리움 유치사업, 속초와 일본 니가타 및 러시아 자루비노를 잇는 국제항로 개설,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등 우리시를 획기적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의 타당성, 성사가능성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사업추진에 신중함과 함께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린바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사업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해양심층수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본의원도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데 적극 협조한 바 있습니다.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켜보고 있는 우리 10만 시민들께서도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꼭 성공할 수만 있다면 일자리 창출로 인한 인구유입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한가닥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민선 4기 출범 임기 절반을 묵묵히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허탈함을 토로 하고 질책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인지 각종 사업추진에 더욱 더 조급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느낌을 사업부서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 본 의원을 비롯한 의회의 거둬들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강행하려는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촉구하는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지를 사용허가하기 위하여는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1일 하수처리 용량이 46,000톤인데 우기 시에는 우수·오수 합류식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이라 하더라도 관광객이 많은 성수기에는 1일 처리용량을 상회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검토하여 사용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하였는지와 하수도법에 의한 기존에 승인받은 하수도기본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에 환경부에 질의나 협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의 강화로 하수고도처리시설을 국·도·시비 등 182억원을 투자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금년 11월 19일까지 수질원격 감시체계(TMS)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 투자와 주민들의 반대와 희생을 담보로 시설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하수량 증가로 인하여 처리용량을 초과하였을 때는 건잡을 수 없는 민원발생은 물론 중앙부처 등에서 행정처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현재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부터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되면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금년 4월 30일 제170회 임시회에서 '심층수개발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수질환경사업소 유희부지에 대해 사업시행업체에 수익허가 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질문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하수도 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매 5년마다 시행해야 하는 하수도 용량에 대한 재산정 용역결과물에 하수용량의 초과로 인한 증설의 필요성이 담겨지면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체적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법률적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수도법11조3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이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지사와 협의여부를 밝혀 주시고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재산처분의 제한이 있습니다. 법적용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0회 임시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신 답변에 변함이 없으신 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 두 번에 걸친 시정질문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와 합리적인 추진의지보다는 민선4기 시정의 대외 이미지가 되어버린 밀어붙이기식 전시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업추진의 일단이라고 판단되며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도를 더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 의원의 지적이 사실로 판명되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오만함의 극치로 규정하고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천명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는 청초호 주변일대 아쿠아리움 유치사업과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과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 드릴 것을 예고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